

보도자료

보도 희망일	제한없음		
배포일	2021. 04. 05.(월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(880-9072, 5054)
담당기관	(재)서울대학교발전기금	문의	기획팀 변영현 (880-5790)

국내 최초 거미박사 김주필 석좌교수 서울대 '구양 김주필 교수기금' 2억원 쾌척

- 국내 최초 거미박사이자 아라크노피아 생태수목원 및 주필거미박물관 김주필 관장(동물학 학사 1963-1967, 동국대 생물학과 석좌교수)이 모교인 서울대 자연과학대학에 '구양 김주필 교수기금' 으로 2억원을 쾌척했다.

- 서울대는 3월 31일(수) 관악캠퍼스에서 오세정 총장을 비롯해 김주필 관장, 이준호 자연과학대학 학장, 발전기금 한일규 기금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.

- 김주필 관장은 “많은 사람들이 거미를 무섭고 징그럽게 생각하지만 거미는 각종 병해충의 천적이며, 거미줄은 각종 광학렌즈의 눈금이나 고강도 섬유로 이용되는 등 머지않아 도래할 세계 유전자 전쟁 시대에 큰 자산” 이라며 “모교의 후배들과 교수들도 미개척 분야를 개척해 한국 기초과학의 큰 자산을 개발하는 성과를 달성하길 바란다” 고 소감을 전했다.

- 오세정 총장은 “생물학자로 강연과 저술활동을 통해 학계 발전에 크게

기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교육과 자연 생태 연구를 향한 열정으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시는 교수님의 기금은 자연과학대학이 우수한 교육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소중히 사용할 것” 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.

□ 김주필 관장은 국내 최초 거미 박사로서 40여 년간 거미 연구에 몰두한 연구자다. 전 세계 110여 개국에서 희귀 거미를 채집했으며 한국의 땅거미를 발견한 최초의 인물로 1995년 경기도 남양주에 오랜 시간 공들여 채집한 6천여 종의 거미 40만 마리를 전시한 주필거미박물관을 개관한 바 있다.

※ 사진설명: 감사패 전달 후 오세정 총장과 김주필 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